

광주복지재단 “코로나 극복 힘 모아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00만원 전달
자발적 참여 성금 모금...“많은 분들께 위로 되길”

광주복지재단은 2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모금행사는 빛고을·효령타운 등 재단 직원 100여 명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일선현장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을 제안하여 이뤄졌다.

모금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재단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은 성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선한 기부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재단 직원들이 보여주신 귀한 뜻에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을 코로나19로 도움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복지사각지대 곳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2일



수혈이 필요한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헌혈 및 성금모금활동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복지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지역 19

개 수행기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생필품과 직접 제작한 천 마스크, 꽃 화분 600개를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서선옥 기자



여수 충무동 동일호스 '봄 이불 20채 후원'

여수시 충무동에 소재한 동일호스(대표 김성만)는 지난 23일 충무동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봄이불 20채를 충무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충무동(동장 황경미)은 후원받은 봄 이불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2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도 함께 수행했다.

동일호스 김성만 대표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실텐데 봄 이불로나마 산뜻한 봄기운을 전달한다”고 밝히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 입상작 발표

그래픽디자인·웹툰·UCC동영상 등

3개 분야 21개 작품 수상...작품집 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지난 2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 최종 입상작을 발표했다.

공단은 4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을 매년 실시해왔다.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그래픽디자인, 웹툰, UCC동영상 3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응모

작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 21점이 선정되었다.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는 권민주 씨의 ‘꿈을 향한 고용의 문을 열어주세요’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꿈이라는 단어의 ‘ㅁ’ 받침을 활짝 열린 문으로 표현하여 장애인고용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웹툰 분야 최우수작은 고철민 씨의 ‘모두의 세상’이 선정됐다.

광고회사의 신입사원이 청각장애인 선배를 만나게 되면서 생기는 일을 그린 이야

기로, 장애인의 직장생활은 그들에게 있어 세상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UCC동영상 분야 최우수작은 주진환 씨의 ‘흑백의 색안경’이 선정됐다.

‘흑백의 색안경’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면 모두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각 분야의 최우수작 수상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이 수여된다.

입상작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번 공모전 입상작을 주제로 한 작품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 “잠시 멈추었던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로 신청하세요”

광주 서구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20대 이상 서구 주민 또는 직장인 중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위험군 200명이다.

신청은 총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오는 5월 12일부터 3주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24주) 서비스가 지원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 대상자에게는 손목에 차는 활동량계(스마트밴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량계를 통해 걸을 수, 칼로리 소모량, 중강도운동량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앱(APP)에 자신의 식사기록을 입력하

여 하루 목표 칼로리량 확인도 가능하다.

또, 보건소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팀을 구성,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건강 및 활동상태, 영양섭취 등을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영양·운동·영역별 상담과 교육 등 집중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지원 기간 중에는 건강생활실천 및 미션달성 우수자에 대해 축하 기념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자기 건강관리 역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며,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멈춰있던 우리의 건강관리에 큰 동기를 부여하고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등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

광양시청년연합회, 코로나19 극복 동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성금 500만원 전달



광양시청년연합회(회장 양흥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지난 24일 광양시청 시장점견실에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광양시청년연합회(11개 읍·면·동청년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광양시재단안

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코로나19 감염대비 및 예방 등 광양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광양시청년연합회 양흥만 회장은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 위축된 광양시민들에게 희망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에 다시 활기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